

長興 巾山里 無文土器遺蹟

崔 夢 龍
李 榮 文

全南 長興郡 長興中學校內에 所在하고 있는 巾山里 無文土器遺蹟은 一九七九年 全南大 心理學科 三年 논문관공이 이곳에서 수집한 無文土器片을 筆者들에게 제보함으로써 알려진 遺蹟이다^①. 그러나 巾山里 인근 일대에서 貝塚이나 聚落址로 추정되는 곳이 보고되어 왔으나 그 정확한 위치나 유적의 성격에 대하여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②.

巾山里 遺蹟은 다양한 無文土器片들이 다량으로 수집되어, 全南地方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無文土器遺蹟으로서 는 규모가 크고 또 중요한 유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까지 全南地方에서 調査된 無文土器時代 유적은 光山 新昌里^③, 光州 松岩洞^④, 雲岩洞^⑤, 牛峙洞^⑥, 潭陽 齊月里^⑦, 靈岩 月松里^⑧, 康津 靑山里^⑨, 和順 天台里^⑩ 등 몇 예에 지나지 않으며, 巾山里 遺蹟의 發見은 先史聚落址로서 뿐만 아니라 靑銅器時代 後期의 研究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이 遺蹟은 圖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의 확실한 堅穴住居址라 말할 수 있는 곳으로 堅穴이나 壁線의 흔적이 住居址 斷面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커다란 고목나무와 학교내라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곳에서出土된 無文土器片들을 볼 때 이 住居址가 光州 松岩洞·牛峙洞·雲岩

洞, 潭陽, 齊月里, 和順 天台里, 靈岩 月松里, 康津 靑山月 등과 함께 全南地方의 先史文化를 파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곳이라 생각된다. 1980년에 여기에서出土 土器片에 대해 科學的인 分析을 한 결과^⑪, 上述한 松岩洞, 牛峙洞 및 忠孝洞 支石墓^⑫에서出土된 土器片과 同一한 제작기술을 보이고 있어 地域間의 交易이라든가 또는 同一한 土器製作을 할 수 있는 專門的인 技術을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또 長興一帶에 수백기의 支石墓가 보이고 있어 이 住居址와의 밀접한 관계를 부인할 수 없으며, 이 社會는 支石墓 築造를 배경으로 하는 階級社會의 發生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⑬.

이 遺蹟은 비록 정확한 發掘調査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보다 자세한 調査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서出土되는 遺蹟이 全南地方의 先史文化의 研究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無文土器 研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우선 이 小文을 통해 그 위치 및 유적의 성격·연대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두고자 한다.

二

長興地方은 韓半島 西南端인 全南에서 南海岸과 인접된 地域으로, 北으로는 羅州·和順郡이, 東으로는 寶城·高興郡이, 西로는 康津郡이 있고 南으로는 南海와 면해 있다.

長興邑은 康津을 거쳐 南海로 흐르는 耽津江流域으로, 주위에는 億佛山(五二五m) 獅子山(五四五m) 帝岩山(七七八m) 修仁山(五五一m) 등의 산들로 둘러 쌓여 일종의 盆地를 이루고 있다. 耽津江流域은 榮山江流域과는 달리 비좁은 平地가 곳곳에 전개되고 있는데, 平地라 하여도 丘陵狀平地가 대부분이다. 長興邑一帶에도 알은 丘陵狀平地를 이루고 있으며, 巾山里遺蹟도 그와 같은 알은 丘陵에 위치하고 있다.

巾山里 遺蹟은 校舍擴張으로 많은 부분이 파괴되거나 깎이어나가 현 地表上에 土器片들이 散在되어 나타나고 있다. 遺蹟의 位置는 長興中學

校內 뒷편 丘陵을 削土해서 만든 정구코트장 근처 일대이다.

住居址 斷面은 정구코트장 左側 계단옆에 가장 뚜렷이 노출되어 있으며, 右側에서도 黑褐色 부식토층이 보이고 있다(圖1)。 또 民家와 경계를 이루는 울타리 근처 즉 丘陵 頂上部에서도 土器片들이 散在되어 있어, 이 丘陵 全體가 住居址를 이룬 集團聚落址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가장 뚜렷한 住居址 斷面은 길이가 약 一〇m, 土器片이 박혀있는 黑褐色層이 六〇cm인데, 위로는 黃褐色 堆積層이 一·五m 밑에는 黃褐色 석비레(생토)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校內라는 地形的인 여진으로 인하여 校舍擴張이나 學生들에 의해 遺蹟이 파괴되고 攪亂되어진 곳이 많다.

이 住居址 이외에도 인근지역에서 發見된 遺蹟으로는 億佛山 주위에 發見된 支石墓^⑭나 石器類 그리고 같은 耽津江流域인 康津 靑山里的 無文土器遺蹟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耽津江流域 一帶에도 이곳에서 멀지 않은 榮山江流域 못지 않는 先史人들의 중요한 생활근거지가 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三

採集된 遺物은 모두 土器片들로서 典型的인 無文土器에 속하는 것이며, 胎土質은 硬質에 속한다. 器形은 罍(cud)形, 鉢形, 豆形, 壺形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胎土質은 石英과 長石의 主成分으로 이루어진 典型的인 無文土器 胎土와 같으나 고운 粘土가 많이 섞여 있다.

외기서 수습된 土器는 完形에 가깝거나 復元되는 것이 수 점이나 되며, 底部片과 口緣部片으로 대개 그 器形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 많다. 器形에 있어서 罍形은 深鉢形 系統으로 小形이며, 鉢形은 사발형과 접시형으로, 豆形은 底部가 平底에 반원형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 壺形은 大壺와 小壺로 나뉘어지며 長·短頸壺도 보인다. 器形중 특이한 것은 牛角形把手, 粘土帶土器, 黑色土器로서의 罍形, 欣岩里式的 높은

器臺(굽)가 달린 豆形^⑮, 松菊里式 土器^⑯ 등으로 이 遺蹟의 性格 및 時期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질 수가 있겠다.

口緣部는 直立口緣, 外反口緣, 粘土帶狀의 口緣, 長頸·短頸 등이 있고, 口緣 끝부분의 처리에 있어서도 外反하면서 위가 잘린 형태, 등글게 잘 다듬은 형태, 손으로 눌러 뽕뽕하게 한 형태 등 비교적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底部는 胴部에서 그대로 底部로 이어지는 것, 일단 축약되어 굽을 이룬 것 등이 있는데, 후자 중에는 欣岩里와 같은 豆形土器가 보이며 이는 다른 굽있는 것보다 높고 옆으로 벌어진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상이 이 遺蹟에서 나타난 無文土器片을 종합해 본 것인데, 각 土器片에 대한 설명은 간략하나마 다음과 같다.

(一) 壺形土器(圖 2—①, 圖 9—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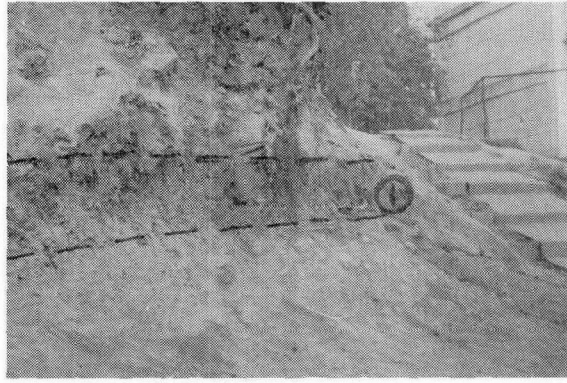
長興中學校 鄉土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口緣部가 缺失되어 없으나 長頸壺로 추정된다. 胎土는 주로 고운 粘土만을 사용하였으며, 色調는 黃褐色이다.

現高 八cm 最大胴徑 九·八cm. 底徑 四·三cm. 器壁두께 〇·七cm, 底部두께 一·二cm

(二) 牛角形把手土器(圖 2—②, 9—②)

長興中學校 鄉土館에 所藏되어 있는 것으로, 半破되어 있으나 器形은 深鉢形체통의 罍形임을 알 수 있는데, 器壁중양에 牛角形把手가 보인다. 底部에 흑색 슬립(Slip)이 입혀져 반들거리고 있어 黑色土器系統으로 보여진다. 胎土는 고운 粘土를 사용하였으며, 色調는 黃褐色 바탕에 흑색이 떠넘퍼옴 나타나고 있다.

高 七cm 口徑 九·四cm, 底徑 四·五cm, 器壁두께 〇·六~一cm, 底部두께 一·二cm,



○ 壁線
住居址 繼面(점선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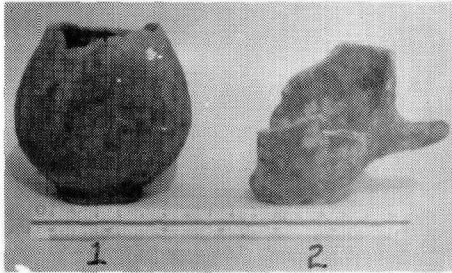


圖 2) 壺形土器 및 牛角形把手付 無文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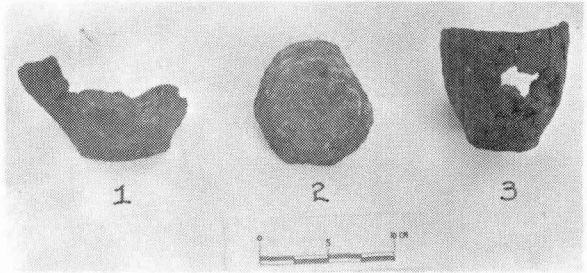


圖 3) 無文土器 底部 및 深鉢形(컵형) 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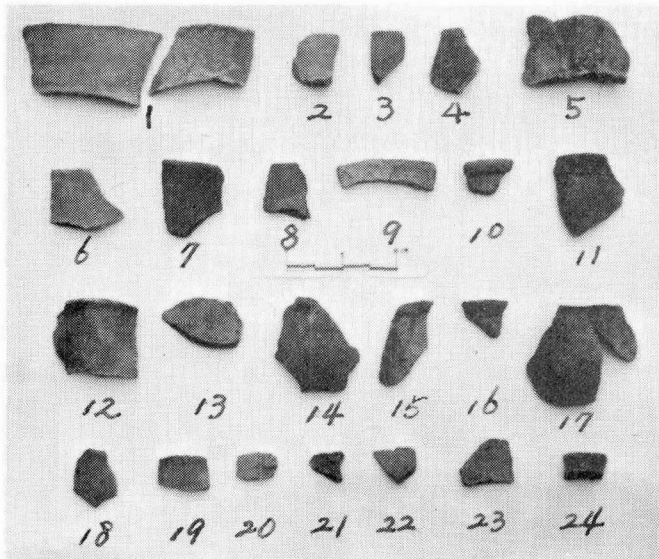


圖 4) 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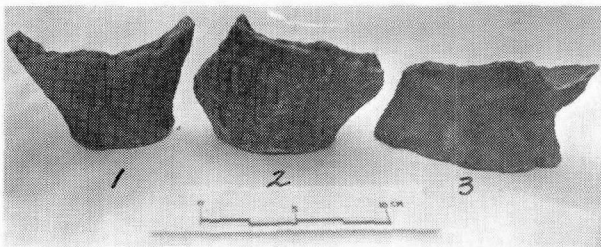


圖 5) 底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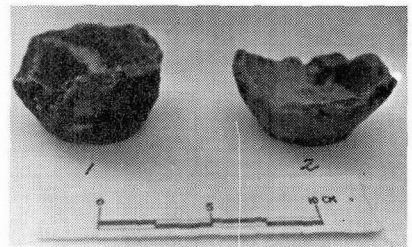


圖 6) 壺形 無文土器 底部.

(三) 深鉢形土器(圖 3—③, 圖 10—①)。

이 土器는 丘陵 頂上部에서 도면 2—②, ③과 함께 出土된 것인데, 半破되어 있으나 原形을 復元할 수 있다. 器形은 鉢과 유사한 深鉢形에 속한 것으로, 器壁이 黑色을 띠고 表面이 잘 마연되어 반들거리고 있어 黑色磨研土器(黑陶)에 가깝다. 胎土는 石粒이 거의 섞이지 않는 高운 粘土만 사용한 것으로 燒成度도 높은 편이다.

高 九 cm, 口徑 九 cm, 底徑 五·四 cm, 器壁 두께 〇·九 cm, 底部 두께 一·六 cm.

(四) 牛角形把手土器(圖 11—①)

半破되어 있으나 原形을 復元할 수 있다. 器形은 深鉢形으로 鉢과 유사한데, 器壁 一部에 黑色을 띠고 있으면서 전자와 같이 표면이 잘 마연되어 반들거리고 있어, 이역시 黑色土器로 보이며, 또 器壁 옆에는 把手가 달렸던 흔적이 보인다.

胎土는 미세한 石粒이 섞인 粘土質이며, 色調는 黑色이며 원래는 黑色이었으나 퇴색하여 灰褐色을 띤 부분도 있다.

高 九·三 cm, 口徑 一〇·八 cm, 底徑 六 cm, 器壁 두께 一 cm, 底部 두께 一·二 cm.

(五) 鉢形土器(圖 8—⑪, 圖 11—②)

半破되어 있으나 底部에서 口緣部까지 비교적 잘 남아 있어 原形을 復元할 수 있다. 器形은 대접과 접시의 중간에 속하는 鉢形으로 〇·五 cm 높이의 굽이 있다. 胎土는 미세한 石粒이 섞여 있으며, 色調는 黃褐色이다.

高 六 cm, 口徑 一五·八 cm, 底徑 五·六 cm, 器壁 두께 〇·五~〇·九 cm, 底部 두께 一·一 cm.

(六) 豆形土器(圖 5—③, 圖 7—⑧, 圖 9—③, ④, ⑤)

모두 底部만 남아 있어 확실한 器形은 알 수 없으나, 대개 圖 9—③은 深鉢形으로, 圖 1—④는 鉢形(대접형)으로, 圖 1—⑤는 壺形이나 深鉢形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비교적 石粒이 적게 섞인 粘土質이며 色調는 黃褐色과 灰褐色이다.

底徑 六 cm 七 cm, 一三·二 cm, 底部 두께 一·七 cm, 一·三 cm, 一·五 cm

(七) 深鉢形土器破片 A(圖 3—②, 圖 11—②, ③)

底部만 남아 있는데 前記한 三項의 深鉢形土器와 함께 出土된 것으로 器形은 대개 도면 2—③는 鉢과 유사한 深鉢形으로 圖 2—③은 壺形으로 추정된다. 胎土는 石粒이 거의 없는 粘土質이며, 色調는 黃褐色이다. 그런데 圖 2—③은 燒成度가 비교적 높은 편(그러나 分析에 依하면 57.3. C 以下로 보인다)으로 器壁이 매우 단단하며, 또 器壁이 兩分된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이는 成形時 한 점을 입혀놓은 것이 火度에 의해 구분이 뚜렷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底徑 六·二 cm, 七 cm, 底部 두께 一·四 cm, 一·三 cm,

(八) 深鉢形土器破片 B(圖 5—①, 8—⑤, ⑬, ⑭, 圖 10—④, ⑤, ⑥)

底部만 있으며 그나마 半破된 것이지만 대개 底徑과 器形을 추측할 수 있다. 器形은 底部에서 바로 胴部로 이어지는 深鉢形인데, 底部의 두께가 두텁다. 胎土는 石粒이 약간 섞인 粘土質이며 色調는 黃褐色을 보이고 있다.

底徑 六·二 cm, 五·四 cm, 七·二 cm, 底部 두께 一·六 cm, 二·四 cm, 二·七 cm.

(九) 深鉢形土器破片 C(圖 6—①, 7—①, ②, ③, ④, ⑤, 圖 12—①, ③)

底部만 남아 있는 것으로, 器形은 대개 鉢형에 가까운 深鉢形으로 추정된다. 底部에서 거의 일치선으로 胴部와 이어지고 있으며, 底部가 두꺼운 것도 있다. 胎土는 石粒이 약간 섞인 粘土質이며, 色調는 黃褐色이며, 燒成度는 낮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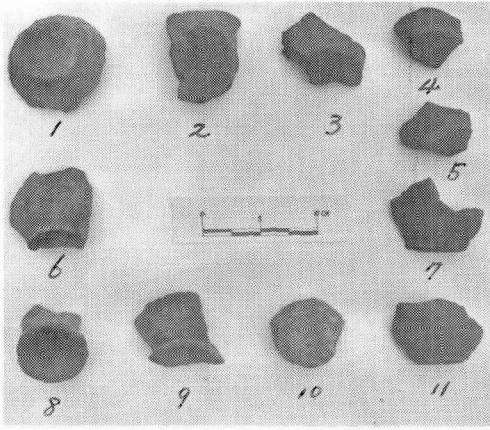


圖 7) 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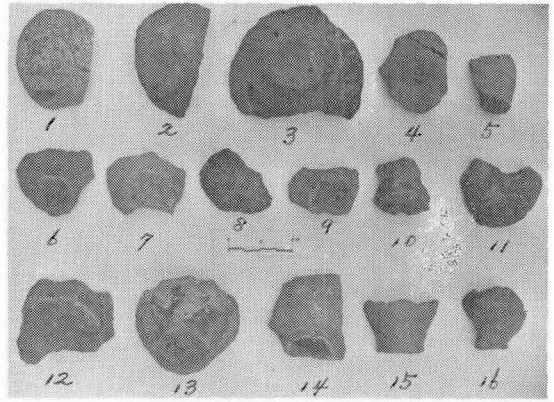


圖 8) 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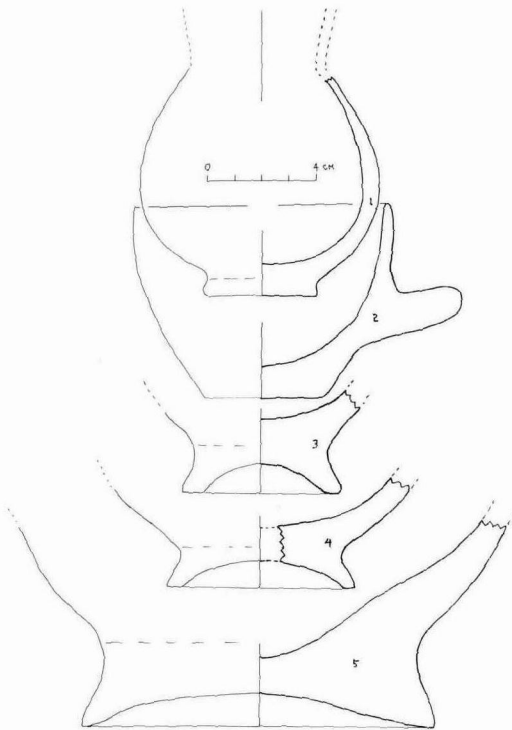


圖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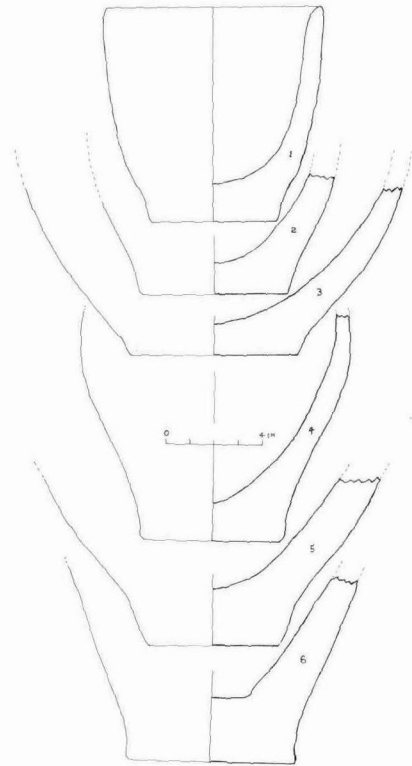


圖 10)

底徑 六 cm, 五·四 cm, 底部 두께 二·三 cm, 一·四 cm,

(一〇) 壺形土器片 A (圖 8—④⑥⑦⑧⑨⑩⑭ 圖 11—③④⑤⑥⑦⑧⑨)

전부 底部만 남아 있으나, 底部에 굽이 있는 壺形으로 추정된다. 胴部는 底部에서 접시모양 옆으로 퍼져 올라가고 있다. 胎土와 色調은 粘土質과 赤褐色이다. 燒成度는 낮은 편이다.

底徑 七·四 cm, 八·八 cm, 七·四 cm, 八 cm, 八·二 cm, 九·二 cm, 底部 두께 二·五 cm, 二·二 cm, 二 cm, 一·七 cm, 一·七 cm, 一·九 cm, 一·七 cm.

(一一) 壺形土器破片 B (圖 6—② 7—⑥⑦⑩⑪。 12—②④⑤⑥)

底部만 남아 있으나, 器形은 대개 底部에서 바로 굽이 없이 胴部로 이어져 曲線을 이루고 있어 小壺로 보여지며, 이 器形은 前記 一項의 壺形土器와 비슷하다. 이는 대개 器壁이나 底部 두께가 얇고, 器壁 처리에서도 세련된 면을 보이고 있으나 胎土나 色調는 다른 土器들과 같다.

底徑 五·二 cm, 五·二 cm, 六 cm, 六 cm, 底部 두께 一·一 cm, 一·二 cm, 一·六 cm, 一·一 cm.

(一二) 壺形土器破片 C (圖 5—② 8—①②③⑬, 圖 12—⑦⑧⑨⑩)

底部만 있으며, 胴部에서 축약되지 않고 바로 底部로 이어지고 있다. 器形은 대개 壺形으로 추정되나 圖 12—⑩은 深鉢形으로도 생각된다. 胎土는 石粒이 약간 섞여 있거나 거의 없는 粘土質이며, 色調는 赤褐色과 黃褐色이 있다.

底部 七·四 cm, 七·八 cm, 八 cm, 九 cm, 底部 두께 一·六 cm, 一·三 cm, 一·七 cm, 二·五 cm.

(一三) 口緣部片 (圖 4, 圖 13·14)

圖 13—①②는 長頸壺와 短頸壺의 口緣으로 대개 口徑을 알 수 있는

데, 그 크기는 각각 一七·八 cm, 一五·二 cm이다. 이중 13—②는 頸部에서 胴部에 까지 黑斑이 나타나 있다.

圖 13—③④⑤⑥⑦⑧ 14—⑦은 壺의 頸部に 屬하는 片들로 口緣 끝이 등글다.

圖 13—⑨⑩⑪⑫는 深鉢形의 口緣部片으로 보여지며 상당히 외반되면 서 끝이 뾰족한 것이 특징이다.

圖 14—①②③④⑤⑥은 深鉢形의 口緣部片으로 생각되는데, 약간 外反되어진 것이며 끝을 손누름수법으로 뾰족하게 하였다.

圖 14—⑧⑨는 直立口緣이며, 14—⑩은 短頸壺의 頸部인데 주위에 손누름 흔적이 보인다.

圖 14—⑪은 粘土帶土器이며 圖 14—⑫는 二重口緣에 가까운 粘土帶를 보이고 있다.

四

이상 소개한 바와 같이 이 遺蹟은 짝여져 나간 단애부에서 보다시피 두문토기시대에 속하는 竪穴住居址의 일부(圖 1)이다.

여기에서 채집된 무문토기들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인 분석을 하여 본 결과 光州 松岩洞, 牛峙洞 龍江部落 忠孝洞의 竪穴住居址, 支石墓出土無文土 器片들과 Montmorillite 라는 공종의 胎土質과 573 C 이하에서 구어진 공종의 제작기술 등大同小異하며, 이곳 유적의 연대가 前者들과 같은 時期에 屬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全南地方各地에서 출토된 유물의 型式을 비교해 본 결과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編年은 韓國考古學의 編年上 靑銅器 II 期(鐵器時代 I, 300 B.C—0)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이곳 巾山里출토 유물중 특이한 것은 牛角形把手, 黑色磨研土器, 松菊里式土器, 欣岩里式 높은 器臺, 粘土帶土器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은 유적은 扶餘松菊里나 驪州欣岩里 竪穴住居址와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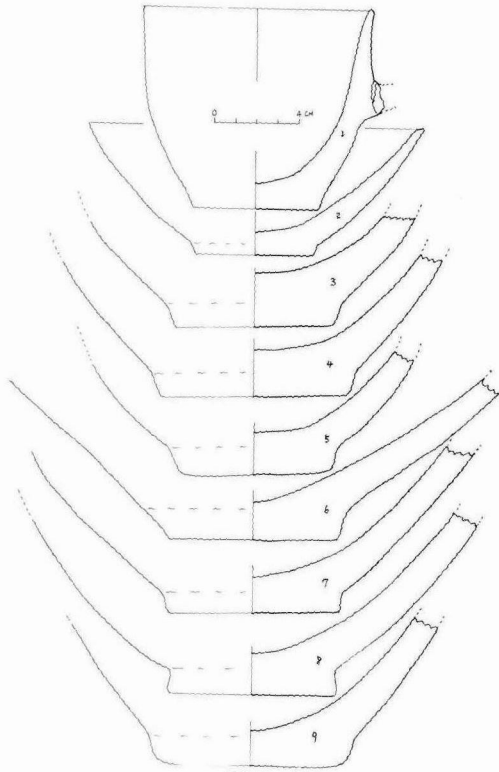


圖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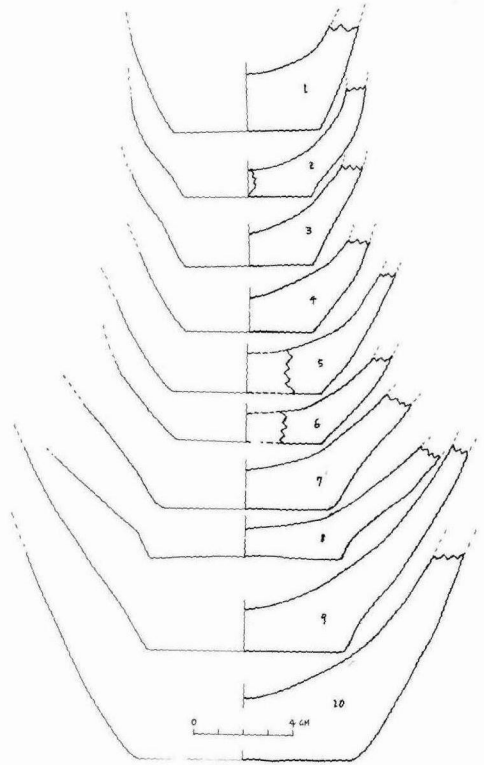


圖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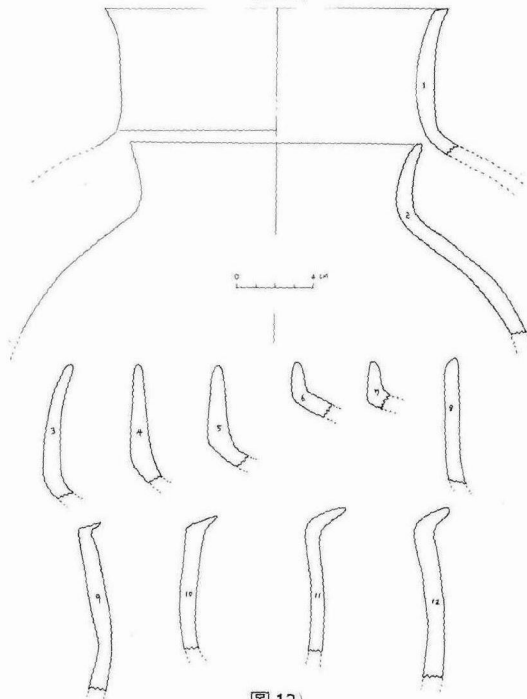


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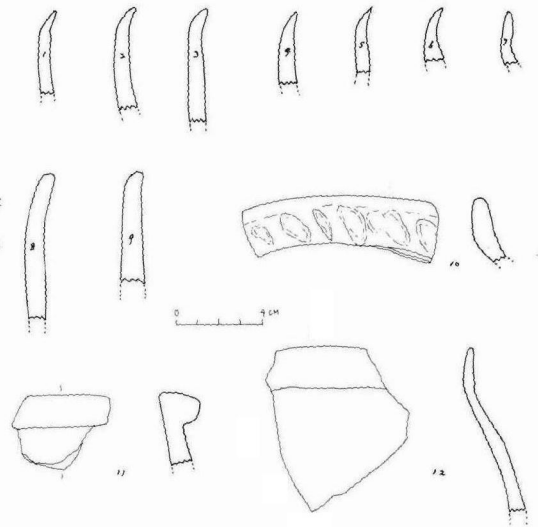


圖 14)

時期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다음에 설명하게 될 粘土帶土器, 黑陶, 牛角形把手로 그들보다 연대가 멀어진다고 하겠다.

李白圭에 依하면 京畿道 地域에서 出土하는 土器는 孔列土器, 紅陶, 角形土器가 出土하는 A群, 그리고 黑陶·把手付壺形土器, 高杯形土器의 B群으로 나누어지며 B群의 年代는 西紀前 5세기 以後가 된다고 보고 있다¹⁰⁾.

이곳 出土遺物의 大部分은 B群에 속하고 있으며 그 實年代도 서기전 5세기 이후에 속함을 할 수 있다.

또 粘土帶土器片도 두점 出土하고 있는데, 하나는 韓相仁의 斷面圓形의 典型的인 I式과 또 다른 것은 斷面이 三角形에 類似한 變形 II式에 속하며, 이의 연대는 I式이 서기전 四~二세기 II式이 서기전 二세기~〇에 속하고 있어¹¹⁾ 巾山里出土의 粘土帶土器는 기껏해야 서기전 四세기를 오르지 못하고 여타의 선사유적과 마찬가지로 서기전 三〇〇~〇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巾山里와 비슷한 유적인 忠孝洞支石墓, 牛峙洞 遺物散布地의 年代가 서기전 四~三세기를 오르지 못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支石墓의 築造·稻作을 背景으로 하고 있는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유적들이 모두 靑銅器 II期다시 말해 初期鐵器時代에 속하고 있으며, 巾山里 유적의 경우 이 시기에 속하는 좋은 유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겠다(一九八二, 二, 二)

[註]

① 一九七九年 이후 筆者가 수차에 걸쳐 踏査한 결과 無文土器時代 遺蹟의 하 나로 그 중요성을 예보한 적이 있다.

李榮文, 『全南·仁川의 大公園調查報告書』 光州市·鄉土文化開發協議會, 一九八一, p.5. 註 ⑨·참조.

② 宋丞容, 『長興郡一帶의 支石墓群考—耽津江流域의 先史文化에 대하여—』(敎師論文集(光州錦湖高等學校) 제 一집, 一九七五, 六, pp. 16~36)에서 「丘陵上에서 無文土器片 다수와 漁網錘 二點, 赤色軟質格子文土器片 등을 표면채

집하였다.」고 하여 向陽里 뒷산(현 長興女子中學校 뒷산)을 聚落址로 추정하고 있다. 또 塚貝에 대해서는 長興邑 築內里 부동들로 추정하고 있으나 확실한 것을 밝히지 않고 있다.

③ 金元龍, 「新昌里 甕棺墓地」 서울대학고 考古人類學叢刊 一冊 一九六四.

④ 崔夢龍, 「光州松岩洞住居址·忠孝洞支石墓」 全南大學校 博物館 古蹟調查報告 第一冊 一九七九. 및 「光州松岩洞住居址發掘調查報告書」 韓國考古學報 第四輯, 一九七八, 四.

⑤ 李榮文, 註(一) 참조.

⑥ 崔夢龍, 『榮山江流域의 先史遺蹟·遺物』 歷史學報 卷五九, 一九七三.

⑦ 崔夢龍, 『潭陽齊月里의 石器文化』 湖南文化研究 卷五, 一九七三.

⑧ 金元龍, 『靈岩月松里의 石器·土器—三角形石刀의 問題』 震檀學報, 卷二四, 一九六三.

⑨ 崔夢龍, 『康津琵琶山里 出土 摩製石器類』 韓國考古, 卷三, 一九七六.

⑩ 崔夢龍, 『和順 天台里의 先史遺蹟』 歷史學研究(全南大學校 史學會) VI, 一九七六.

⑪ 崔夢龍, 『Analysis of 'Plain Coarse Pottery' from Cholla Province, and the Implication for Ceramic Technology and So-called 'Yeongsan River Valley Culture Area』 韓國考古學報 卷十一·十二합집, 一九八一.

⑫ 崔夢龍, 註(四) 참조.

⑬ 崔夢龍, 『全南 先史文化의 再照明』 龍鳳(全南大學校 學徒護國團) 卷十二, 一九八一 pp.53~57.

⑭ 宋丞容, 註(二)참조 및 崔夢龍, 「全南考古學地名表」 一九七五. 長興郡條 참조.

⑮ 「欣岩里住居住居址」(서울대학교 考古人類學叢刊 第四冊 一九七三) 圖版 八

⑯ 「松菊里 I」 國立博物館 一九七八. 圖面 六四의 一.

⑰ 崔夢龍, 註(11) 참조.

⑱ 崔夢龍, 『全南地方 支石墓社會의 編年問題—出土遺物을 中心으로—震檀學報 卷五十三輯, 一九八二, 六(未刊)』

⑲ 李白圭, 『京畿道 無文土器·磨製石器』 考古學 三, 一九七四 pp.5~11.

⑳ 韓相仁, 『粘土帶土器文化性格의 一考察』 서울대 大學院 考古學科 碩士學位 論文. 一九八一.

(서울대 人文大 考古學科 助教授 및 光州 博物館學藝研究士)